마땅한 권리 포기가 상이고 자랑이다

(고린도전서 9:1~18)

4.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7.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땅한 권리 포기가 상이고 자랑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땅한 권리 포기가 상이고 자랑이다”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포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이고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의 포기가 어떻게 상이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권리”라는 것은 본문의 맥락만을 보고 이야기하자면 무엇인가를 마땅히 해도 되는 자격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마땅히 해도 될 수 있다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자랑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나도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오히려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포기를 상과 자랑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포기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권리의 포기를 자랑과 상으로 여겼을까요? 이러한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근본적인 하나의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의 근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모든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가졌음에 대해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신다면 왜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좋고 세상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세상을 빠져나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결혼이 왜 좋은가에 대해 물었더니 “결혼이 좋은 이유는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더해 “이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질문한다면 “결혼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을 위해 결혼이 좋고 의미가 있고 유효한 것이다.”라고 대답한다면 무척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원리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좋은 이유는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십자가가 해주기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가 왜 좋은가?”라고 묻는다면 “십자가는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기에 좋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가능하려면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좋은 이유가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정신 나간 소리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을 빠져나가는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을 좋아했던 이유는 세상을 빠져나감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세상을 버림으로써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또한 아내 사라도 버렸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도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이삭까지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버릴 수 있어서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보이는 이삭을 버림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가 좋은 이유는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버림으로써 사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세상을 통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세상 버리기가 가능한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옆으로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음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세상은 참으로 귀하고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것을 얻었을 때 자랑합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어! 내가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했어!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건강검진을 했더니 나이보다 훨씬 젊다네!”라는 자랑을 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음을 자랑합니다. 빠져나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안에서 사도이기 때문에 주어진 권리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권리는 세상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내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8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함이란 사도 바울이 말한 자랑에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랑거리는 세상을 빠져나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빠져나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빠져나감으로써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형제에게서도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형제가 자신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빠져나가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우상숭배의 습관이 더 극성화되고 되돌려짐으로써 복음에 역주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세상을 빠져나가는 대신에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고기를 먹는 것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가 있기에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자격

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에서 고기를 먹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세상을 빠져나가는 이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을 권리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형제를 계기로 삼아 다시 한 번 해나가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권리는 곧 세상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질 자격을 형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버린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거리이자 기쁨이 되는 일을 한 번 더하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기에 형제가 세상 빠져나가기를 도울 수 있다면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렇기에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음에도 포기하기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세상을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행태와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별종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리의 포기를 상이고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해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는가를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라는 근원적인 신분에서 나오는 권리를 포기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도 바울이 포기한 자유와 권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남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진 신분과 위치와 지위에서 비롯되는 자유와 권리는 포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지는 권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복음과 연관되어서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이고 기쁨거리이며 상이 되는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을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음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여기셔서 어떤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상이라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상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빠져나가기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바랐기에 세상에서 권리의 포기를 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요구하고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복이나 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어진 권리의 포기를 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주어지는 권리의 포기야말로 세상을 빠져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고 추진력을 보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에 태어난 내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임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임을 느끼십니까?
앞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유일한 있음이시다, 조물주로서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있게 된 것들이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유일한 좋음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유일한 주체성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보다 더 이상의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길이 십자가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 세상을 등짐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로 자주 향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체성이시다."라는 지식보다 더 좋고 더 낫고 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붙잡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분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분이 새로워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좋게 여긴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을 빠져나가 하나님께로 가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을 가장 좋은 일이고 상으로 여기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 대표적 권리가 생계비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입장에서 교회에 생계비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도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출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권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어지는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복음에 장애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였습니다. 고린도교회 전체가 이러한 가정모임의 집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러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교회는 사도들에게 생계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인들이 볼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생계비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복음을 전한다." 혹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복음의 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아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소위 강사료를 주십니다. 이전에는 그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에서 강사료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마음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사료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인격이 훌륭하거나 돈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진척되는 우리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정의 아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라는 자격은 곧 남편에 대해 권리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자녀에 대해 갖는 엄마로서의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남편이나 자녀에게서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런 자격과 권리로 치자면 한 사람에게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마음을 세상에 남아있게 하는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교회에 있을 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복음이 생계비를 얻는 수단으로 교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자신을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에 대해 매여 있는 부분이 흔적조차 없음을 확인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생계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이고 기쁨인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서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계기로 삼아서 한 번 더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땅한 권리조차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랑의 핵심원리는 세상을 빠져나가기입니다. 이 세상이 유효한 이유, 이 세상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만 이혼을 할 수 있듯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좋은 이유는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 두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땅한 것이기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 어떤 권리가 주어져 있는가, 엄마로서 자녀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회사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주어져 있는 모든 자격과 권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상이고 자랑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돈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나와 같이 돈이 생기기를 바랄 것이고 이웃에게 돈이 없다면 내 돈이라도 주고자 할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서울대학이라면 이웃도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이나 서울대학이나 승진을 비롯하여 모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모여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이자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웃사랑은 이웃도 세상을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빠져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볼 때 세상에 붙들려 있는 흔적이 조금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도로서의 신분에 주어진 생계비라는 마땅한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한 권리가 포기된 그 자리를 하나님은 교인들의 마음에서 사랑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심으로 포기된 권리의 자리를 자발적인 사랑으로 메꾸게 하십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데 특히 빌립보 교회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전체를 재정지원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고 동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인 생계비를 요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도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포기된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가난이 극심했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불러일으켜지자 사도 바

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사랑함으로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포기된 권리를 자발적인 사랑으로 메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교인들을 이렇듯 사랑이 오고가는 관계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꼭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교인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권리행사의 자격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일수록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세상에 묶어두는 강력한 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자격과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 사도 바울의 상, 사도 바울의 기쁨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이고 가장 큰 기쁨거리이며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이며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빠져나가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상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기를 넘어 그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